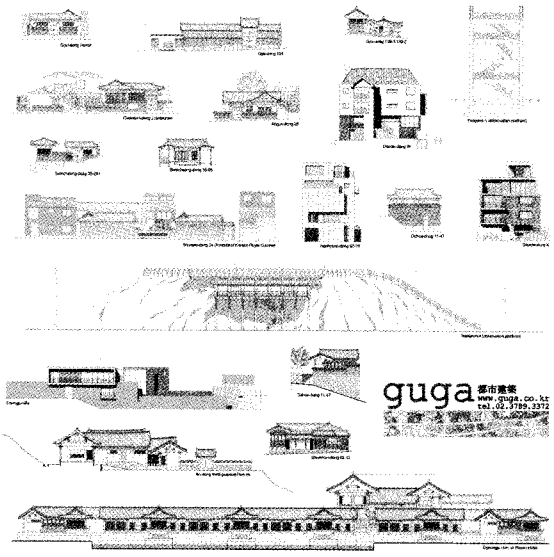
한옥 작업에 대한 소고 -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조 정 구
(guga 도시건축 소장)

1. 들어가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30여개의 한옥을 고치거나 새로 계획하여 왔다. 전통건축 설계사무소가 아닌, 일반 설계사무소로는 많은 수의 작업을 해왔다고 여겨진다. 가회동의 조그만 도시한옥을 맡아 기본설계를 하고, 심의 등의 소소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면서 시작했던 작업은, 기본설계에서 감리, 감리에서 시공 그리고 여러 지역의 다양한 신축 한옥 설계로 이어졌다.



[그림 1] guga 도시건축 작업들의 Elevation 모음 : 일상생활과 가까운 보편적 건축을 설계하여 왔으며, 한옥설계는 주요한 축을 형성함.

현재 한옥분야는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북촌 마을 가꾸기, 전주 한옥 마을에서 보듯이, 지역재생의 한 축으로 한옥의 등록과 지원, 심의절차를 두어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주택산업에서는 새로운 웰빙 주거로 한옥이 인식되면서,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한옥 보존과 보급을 위한 '한옥법 제정' 움직임이 있으며, 한옥이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한옥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 등이 전개되고 있다. 가히 '한옥 붐'이라 할 만큼,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한 설계사무소의 개별적인 작업이 이러한 전체 양상과 흐름을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작업은 다음에 열거할 작업배경 속에서, 한옥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인식하고 작게나마 개척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2. 작업의 배경

우리 작업의 첫 번째 배경은 '도시한옥'이다. 이른바 전통건축의 분야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도시한옥이지만, 근현대 도시의 성장과 변화 속에 도시한옥은 중요한 주거유형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왔다. 현재 서울에는 20,000여 채가 남아 있다고 하며, 우리 작업의 대부분은 이들 서울의 도시한옥을 개보수하고 시공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배경은 '현대적인 삶'이다. 우리의 작업은 문화재 등과 같이 제한된 기능과 용도의 전통건축물을 다룬 것이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요구와 삶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과거의 조건과 상황 속에 지어진 한옥, 즉 전통적인 구법의 공간 안팎으로 현대적 삶을 결합하는 작업'이었다.

■ 기본적 해결사항들

먼저, 거의 모든 작업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옥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이나 거주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록을 위하여 남겨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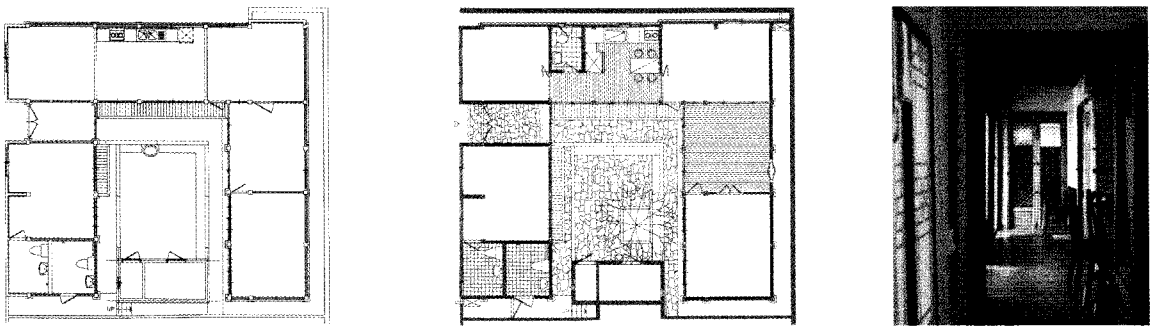
1.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구성
2. 화장실의 실내화와 쾌적성 확보
3. 모기장과 방충구간의 고민
4. 냉방 조닝 및 실외기 위치
5. 단열대책과 목재 이중창의 부분별 도입
6. 수납공간의 확보
7. 조명의 방법 및 배치
8. 전기 · 통신 등의 배선

3.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본 한옥의 전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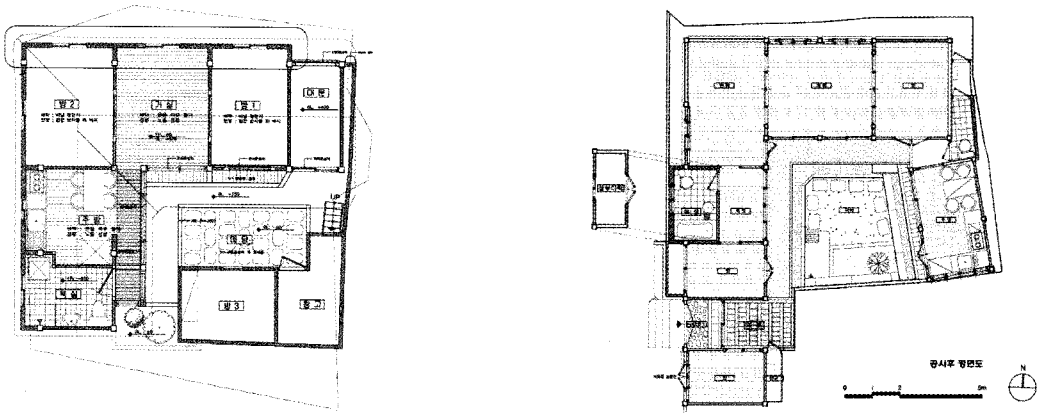
아래에 소개한 사례들은 우리가 작업했던 한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건축가로서 능동적으로 제안한 계획과 더불어 건축주나 시공자의 생각에 의하여 제시된, 달리 표현하면 '자생적으로 전개된' 계획내용을 포함하였다. 앞으로의 한옥 전개방향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4. 연결동선의 내부화에서 현관의 등장까지

실내에 들어설 때 마다 신을 벗어야 하는 불편함과 실내에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생활의 필요로 한옥에서 각 실을 묶어주는 연결동선은 점차로 내부화되고 있다. 서대문 한옥에서처럼 안방과 부엌, 부엌과 문간방을 구분하는 벽에 문을 두어 안채의 모든 동선을 내부화하거나, 소격동 한옥의 경우처럼, 밖으로 붙은 퇴를 실내화 하여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제안으로 툇마루를 방 앞으로 모두 둘러, 안채와 바깥채를 하나로 연결하고, 여기에 집으로 들어오는 문간에 마루를 연결하여 현관과 유사한 역할의 공간을 도입한 경우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축한옥에는 현관을 만들고 전체 동선을 통합하여 계획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퇴를 실내화하거나 현관을 두는 것이, 아직은 우리 미의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공간을 한옥



[그림 2] 서대문 한옥 공사 전, 후 평면과 사진



[그림 3] 소격동 한옥 평면과 계동 한옥 평면 : 실내화된 툇마루 공간을 색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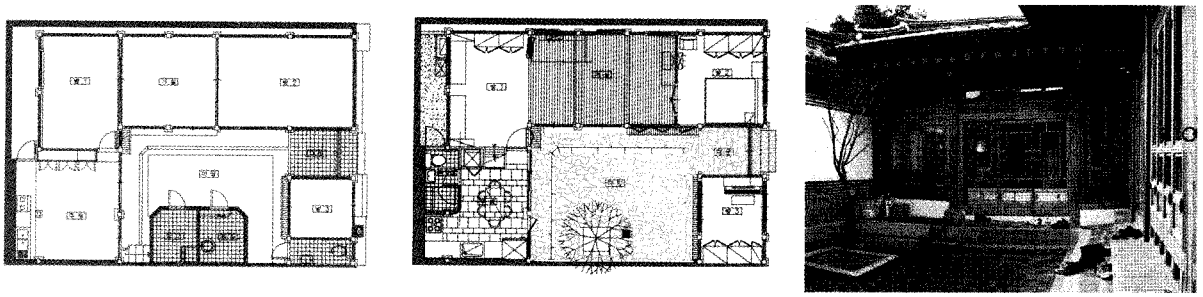
에 부여할 때,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건축구법과 언어를 도입할 여지가 있다 하겠다.

5. 마당공간의 중시와 이면공간의 활용

마당은 비워지고 더 격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욕실이나 화장실, 수납공간으로 활용되던 마당 장독대는 화장실 등의 실내화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 계속 거주를 하며 집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있지만, 공사를 하고 새롭게 입주하는 경우에는 장독대를 없애고 마당을 크게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옥인동 한옥에서처럼, 수납공간을 안방뒤쪽에 확보하고, 장독대를 철거하였다. 이 때, 마당에는 온수와 냉수를 같이 쓸 수 있게 하여, 여름철 물놀이나 다양한 쓰임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마당은 비워지고 있지만, 한옥과 주변 경계 사이의 처마아래 이면공간은 화장실, 붙박이장, 창고, 보일러실 등으로 증축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한옥의 원형을 지켜가는 것은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안과 밖을 완벽하게 증축공간 없이 계획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실제 생활의 쓰임과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증축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면, 주변 대지 경계에 밀착하여 점유공간이 들어서고, 습기나 통풍, 건물관리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느 쪽도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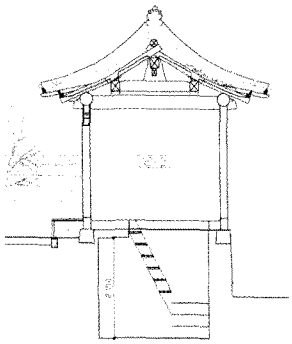
신축한옥의 설계에서 마당을 확보하고, 경계와 적당한 이격거리를 두며, 마당에서 보이지 않는 뒤쪽이라 할 수 있는 처마아래 이면공간을 내부공간의 지원공간-service space로 활용하는 것은, 생활의 편의와 공간의 효율적 이용에도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실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증축행태 역시 바로 이러한 이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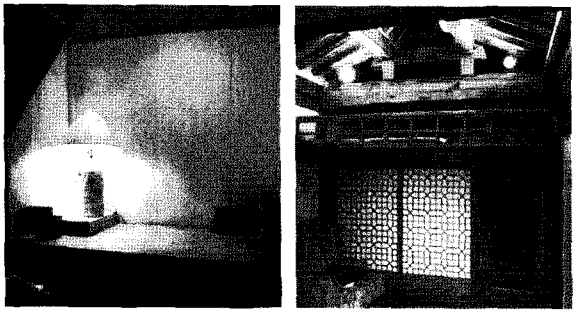


[그림 4] 옥인동 마당 공사 전, 후 비교 및 사진

6. 공간의 입체적 사용, 다락과 지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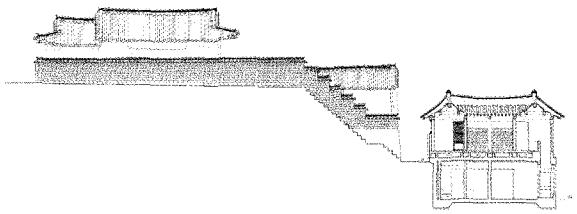
한옥은 오래전부터 입체적으로 공간을 이용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대청이나 누마루 아래에 작은 지하공간을 주어 수납공간을 마련하거나, 부엌이나 창고 위에 다락을 두는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한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삼청동 아름드리 사옥에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원래 있던 작은 지하공간을 확충하고, 슬라이드 수납방식과 작은 열람공간을 마련하여, 밀도 높은 사무공간에서 업무효율을 높이려 하였다. 또한 마당 맞은편에 있는 거주 공간에는 다락을 두어, 아래는 방, 위에는 아이들의 침실로 쓸 수 있게 입체적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5] 삼청동 지하공간 단면도 및 지하 열람공간 및 다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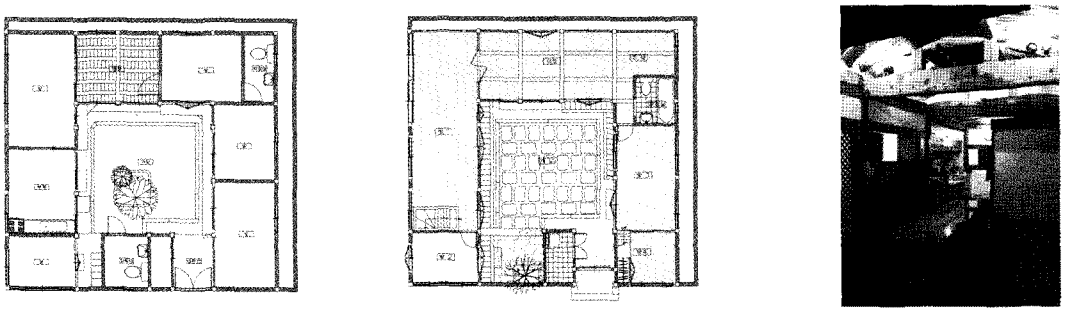
집합화된 형상을 유지해야 할 한옥군 속에서 특히, 지하공간의 활용은 그 의미가 크다. 한옥의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아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수납공간만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지원공간 혹은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2층 한옥의 가능성만큼이나 지하공간의 활용과 방식, 한옥 개보수에서의 법적 적용에 대한 문제가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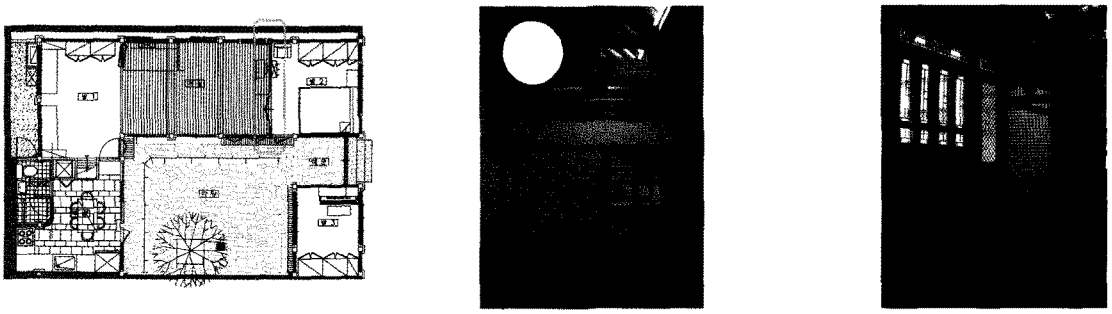
[그림 6] 가회동 한옥 단면도 : 측면 길에서 본 단면, 지하공간을 사무실로 계획함.

7. 2칸 대청 + 안방 vs 3칸 대청

현재 개보수된 한옥은 다양한 형식의 거실공간을 갖는다. 삼청동 아름드리 한옥의 경우, 대청과 부엌, 식당이 하나가 되어, 노출된 천장 아래 통합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때 대청은 2칸에서 3칸으로 확대되어, 거실 겸 작업실,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구석에는 그 공간을 서포트 하는 부엌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거실로서 대청을 확대한 다른 경우로는 옥인동 한옥이 있다. 건축주 가족이 많은 시간을 거실에서 같이 보내는 점에 착안하여, 2칸 대청을 3칸으로 하였다. 아름드리 한옥과 다른 점은, 여기에 '가짜 기둥'을 써서 칸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원래 건너방



[그림 7] 삼청동 한옥 공사 전, 후 평면도 및 사진



[그림 8] 옥인동 안채 윗부분 공사 전, 후 평면도 : 가짜 기둥 부분 표시 및 내외부 사진

[그림 9] 서대문 한옥의 대청과 안방부분 표시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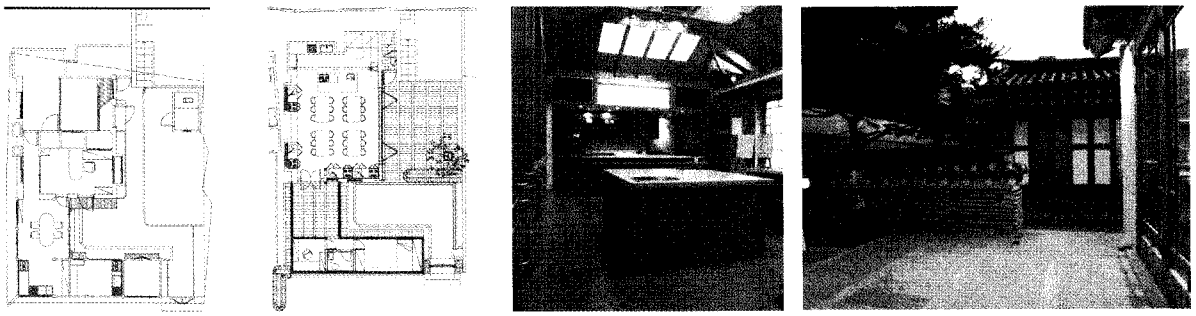
과 문간방을 터서 하나로 쓰고 있던 것을, 대청과 같은 폭으로 문간방 칸 사이에 가짜기둥을 두어, 3칸 대청을 만들었다. 새롭게 늘어난 1칸 대청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들보를 감싸 대들보로 만들거나, 종도리 아래 장식을 재현하고 내부 박공벽을 만들도록 계획하였다. 모든 공간 구획이 기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한옥 계획상의 특징을 가짜기둥으로 해결해 본 경우이다.

그런데 모든 거실공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만들 수는 없다. 서대문 한옥의 경우, 2칸 대청을 그대로 두고, 안방을 가족실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2칸 대청을 가급적 비워두어 전통 격식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와 연결된 안방에는 TV나 장식장, 소파 등 가족이 단란하게 쓸 수 있는 가족실로 사용하여, 두 가지 다른 성격의 거실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예라 하겠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2칸 대청에 안방을 결합한 형식이나, 3칸 대청으로 거실을 확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거실형식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8. 다른 건축구법 / 유형과의 공존

전통 목구조 한옥이 복잡한 도시 상황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한된 비용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건축구법 혹은 다른 시기에 지어진 건축유형과 공존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은 이러한 공존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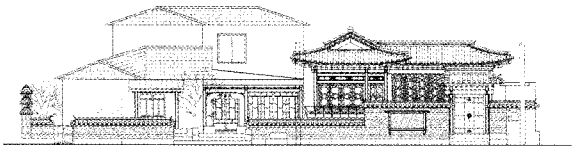
궁중음식연구원 별관은 본원 바로 옆에 위치하여, 사무공간과 현대적 조리실습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신축이 아닌 개보수 공사로 전면에 있는 한옥은 사무공간으로 일부만 고쳐 사용이 가능했지만, 뒤쪽에 있던 주택은, 외곽 벽만을 그대로 둔 채 '서양식 목구조로 지붕'을 얹었다. 무엇보다 한옥 기와지붕으로 목구조를 할 경우, 지붕하중의 구조적 문제와, 기둥 없는 무주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옆에 있는 데크 공간과 연계하는 개방적 활용에는 서구식 목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구식 목구조와 금속지붕을 얹었지만, 창호와 기타 내부 디테일에 전통 패턴을 모던화하여 적용하거



[그림 10] 궁중음식연구원 공사 전, 후 평면과 실습실내부, 한옥마당 사진

나, 간략하게 구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조화를 꾀하였다.

다른 건축유형과의 공존을 꾀한 경우는 인사동에 위치한 '지리산 한식당'이 있다. 일식가옥과 한옥이 결합하여 하나의 식당으로 쓰고 있는 사례이다. 기존에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출입구와 두 개의 주방을 하나로 통일하고, 두 건물 사이의 마당으로 진입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외형적으로는 한옥의 외벽 담장이 확장되는 형식을 취하고, 출입을 위한 사이 마당에는 전통적 패턴을 모던화한 입면을 도입하고, 일식건물 캐노피는 보다 더 단순한 패턴을 적용하여 발코니로 변경하였다. 한옥에서 일식가옥에 갈수록 전통패턴을 단순하고 모던하게 계획하는 '단계적 변화 - Gradation'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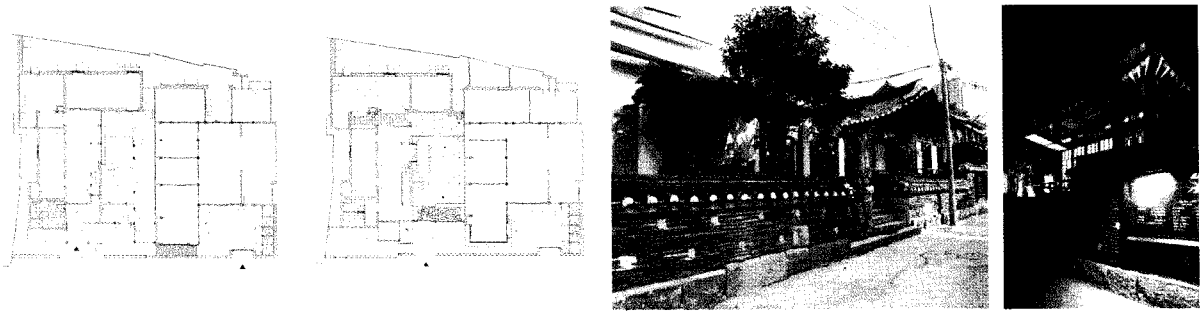


[그림 11] 인사동 지리산 계획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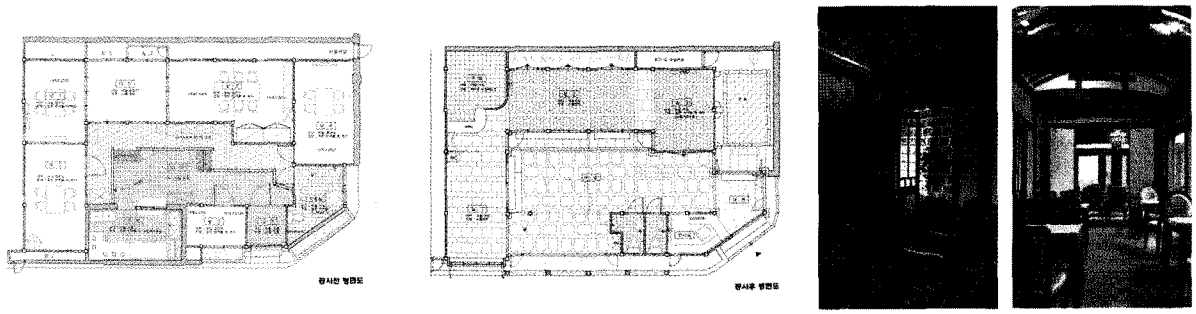
흔히 한식당에서 많이 보는 '가짜 서까래와 청기와 지붕을 입면에 붙이는 것'에서, '장혀 아래의 입면요소들을 모던하게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이질적인 건축유형을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한 패턴의 레이어'로 조화하려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외부로 나온 한옥의 일부공간을 '누마루화'하여, 내외부적으로, 인사동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유로운 풍경'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물론 방바닥의 높이는 전통 누마루와 같이 올리지 않고, 들문과 계자난간을 둘러, 누마루이면서도, 내부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필요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9.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전환

좌식이 입식으로 바뀌는 경우는 상업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서울 인사동 일대의 한옥들이, 신을 벗지 않고, 테이블 등에 앉을 수 있는 입식공간으로 쓰이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 한옥이 지니는 공간구성과 레벨 등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그림 12] 인사동 지리산 공사 전, 후 평면 및 사진



[그림 13] 인사동 누리 공사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것이다. 인사동 '찻집 누리'에서 원래 한옥은 안채에 사랑방이 붙어 있는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바깥으로 별도의 사랑마당의 흔적이 있어, 이에 주목하였다. 입식으로 바꾸면서 대체적인 공간을 단순화하였지만, 사랑방을 별도의 '방'이 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연못이 있는 사랑마당을 만들어 안팎으로 여유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바닥 레벨은 마당-기단-방으로 점차 오르는 원래의 레벨을 재현하고, 바닥 마감은 타일로 마루패턴을 응용하여 깔아 보았다. 쓰임의 용도에 따라, 주거공간 혹은 주거복합공간에서 이러한 입식공간으로의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0. 마당의 실내화

다양한 일상의 내용이 전개되며, 하늘로 개방되어 자연을 끌어들이는 마당의 역할은 한옥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간이용의 밀도가 높아지는 현대 도시에서, 입식으로의 전환만큼이나 '마당의 실내화'는 주거·상업공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 운영지침에도, '한옥 마당 상부를 개방할 것을 권고하지만, 부득이 내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마당 상부구조물을 투명하게 처리하거나, 높이가 처마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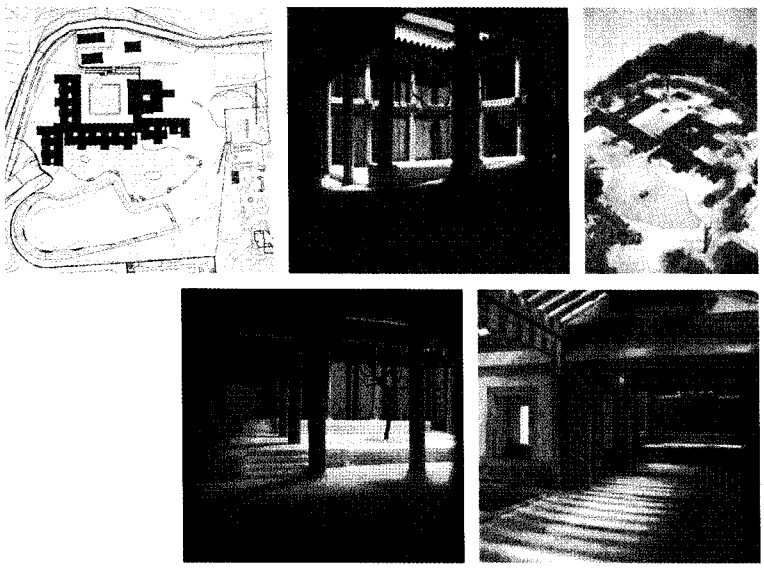
이러한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동 '찻집 누리'는 '목재 아뜨리움'을 계획하였다. 기존에 비닐슬레이트와 간이 목상으로 구성된 마당상부를, 한옥 목구조에 결구된 보와 마당에 설치된 기둥, 그리고 상부 페어글라스를 지지하는 래프터 등으로 엮어, 기존 한옥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결합하였다. 여기에서는 마당과 바닥의 레벨차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여러 가지 실내화된 마당을 도입할 경우, 실내 마당과 한옥 단위 공간과의 접합관계는 주의하여 계획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14] 인사동 누리 목재 아뜨리움 사진 : 공사 전, 중간, 준공 후

11. 전통건축 요소의 다양한 결합

계획을 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건축의 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해체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결합하는 '계획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통건축의 계획적 제한성을 요약한다면, '제한된 용도와 그에 맞게 정해진 전통건축요소'라 말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격식'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전통건축이라 여길 수 있음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현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도 커다란 현실적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경주에서 지어지고 있는 한옥 호텔 'R'의 경우, 다양한 전통 건축요소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입구에서 진입하는 관리동은 '2층 규모의 요사체와 높은 회랑을 결합하고 있으며, 숙박동은 궁중 혹은 사찰의 회랑과 도시한옥의 유형을 연립하여 결합하고 있다. 또한 객실 내부에는 도시한옥에서는 보기 어려운 누마루를 두어, 조경 및 수경공간을 조망하도록 하였다. 가급적 현대 건축요소를 내연화하고, 전체를 전통 목구조에 기반하여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림 15] 경주 라궁 배치평면도 및 모형사진

12. 맺으면서

지난 수년 동안 했던 한옥 작업들 중 기존 한옥의 개념과는 다르게 전개한 계획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열거하여 보았다. 여전히 이 중에는 보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에서, 개별적인 사례로 그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작업의 배경에서 설명하였듯, 그것은 '도시한옥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었으며, '현대적인 삶의 내용과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도시한옥은 전통건축의 구법과 격식이 생략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구법과 격식의 이완성'이 오히려 새로운 근현대적 요구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도시 환경 속에 여러 모습으로 자리하면서 집합적 형상을 이루는 '적응력과 결합성'은 기존의 전통 건축이 이루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전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현대적인 삶이 한옥의 범주 '안'에서 모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옥과 다른 구법과의 조화, 또는 이제까지 없는 새롭게 진화된 구법이 출현하고, 이것들이 한옥의 '안팎에서 결합'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부족한 소고이지만, 앞으로 여러 연구자의 관심이 이어져, 현대 한옥의 발전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